

## 마태오 복음서 해설을 마치며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오는 예수님을 ‘스승’이시며, 하느님 뜻의 궁극적인 해설가로 소개합니다. 마태오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초대 교회 공동체 특히 마태오가 속한 공동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태오가 전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부족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해설하였습니다. 이 해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마태오 복음사가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태오 복음사가가 속했던 신앙 공동체와 지금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언제나 ‘지금’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흘러넘침은 주변으로 퍼집니다. 사람을 물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물이 든 이웃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사가가 그토록 희망했던 것이고, 그 희망은 지금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를 통해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신앙 고백서인 복음을 해설하는 순간순간이 새삼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교우가 신앙 고백서인 복음을 읽고 읽은 바를 깨달으며,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구룡 본당에서 신성근 야고보 신부

조금 쉬었다가 ‘마르코 복음서’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